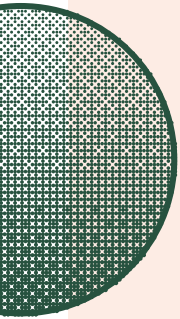


정암 조광조의 이상과 좌절



훈구와 사림

고려말에 성리학이 전래되며 한국 유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성리학은 한당유학에 비해, 선종 불교의 영향 등으로 인해 철학적 성격이 강화된 신유학이다. 고려 후기부터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향리 출신의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수용하며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고려의 모순을 진단했고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책을 제시했다. 개혁의 방향은 신진사대부들의 정치 사회적 위치나 개인의 성격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비교적 일찍부터 중앙에 진출하여 고려의 기득권층과 관계가 원만한 이들은 고려 왕조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온건파였다. 반면 시기적으로 늦게 중앙정계에 진출했으며 사회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대부들은 역성혁명을 꿈꾸었다. 온건파 사대부가 급진파 사대부에 비해 수적으로도 앞섰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컸다. 그러나 급진파는 실력과 세력을 갖춘 무인 이성계와 손을 잡았다. 이성계 입장에서도 포은 정몽주를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나서 급진파와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정몽주의 선죽교 피살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고려는 무너지고 조선왕조가 개창했다. 온건파 사대부의 상징적 존재이자 삼은이라고 불리는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목은 이색은 죽거나 숨었다. 조선 초기의 헤게모니는 소수파였던 급진파 사대부가 잡은 것이다.

그렇다고 삼은의 제자들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들은 뿔

뿔이 흩어져 훗날을 도모했다. 원래 이들은 재향 중소 지주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서 사당을 짓고 제자를 가르치고 스승을 배향했다. 그렇게 훗날을 도모한 것이다. 이들은 사림으로 불린다. 선비[士]들은 숲[林]을 이뤄 공론을 만들어 훈척대신을 비판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고려는 망했지만 이들이 지킨 절개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의명분을 확보하여 정치적 영향력은 커져갔다. 반면 실권을 잡은 급진파 사대부들은 점차 기득권층으로 변하였다. 이들은 개국공신의 자격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독점했다. 훈구로 불리는 이들은 제도 개선과 국가 운영에 힘썼지만 성리학에 대한 깊은 탐구와는 멀어지게 되었다. 조선의 왕들은 훈구파들에 대해 염증을 내기 시작했다. 성종 재위 시절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림은 훈척의 견제를 받으며(사화)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선조가 즉위한 후부터 훈척을 사실상 몰아내고 조선 정치의 주역이 되었다. 정암 조광조는 사림의 중앙 진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자 한국 사상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학자로, 한국 도학을 성립시키고 기본 성격을 형성하였으며,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를 비롯하여 후대 사림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오늘날에도 정치적, 사회적 개혁이 요구될 때마다 역사적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사실 정암이 실제로 벼슬길에 올라 정치 활동을 한 것은 불과 약 4년으로 전혀 길지 않다. 짧은 기간 활동한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사상에 주목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

정암 정치사상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

정암이 17세가 되던 해에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이때 부친 조원강이 북방의 압록강변 어천역의 찰방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소학동자'를 자칭한 한훤당 김굉필이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평안도 청천강 근처의 희천으로 귀양을 왔다. 이때 정암이 한훤당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한훤당은 사림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직의 문인 가운데 한 명으로, 결과적으로 정암은 김종직 이후 사림세력의 맥을 계승하게 된 것이다. 조광조의 학문적 계보는 고려에 성리학을 도입하고 의리를 숭상하면서 절개를 지켰던 정몽주, 길재로부터 그다음 세대 학자인 김종직, 김굉필에게 닿아 있다. 이렇게 조선 성리학의 계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암은 성리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다듬어 도학 정치를 현

실 정치에서 실현하려 하였다.

연산군의 실정 때문에 일어난 반정이 성공하며 그 정국공신 세력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중종은 반정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한 채 추대되었기 때문에 공신들의 권력 집중화는 심화되었다. 게다가 군주의 위상 자체가 연산군의 패륜으로 인해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다. 즉, 왕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국공신 중심의 대신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국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종은 융립된 지 10년이 지나자, 반정실세들에게 넉더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 군주로서의 권위와 실권도 회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세력 제거가 전제되어야 했다. 중종은 공신세력의 대항마를 찾기 시작했고, 이런 중종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발탁된 인물이 바로 정암 조광조였다. 그리하여 정암은 중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조선조를 통틀어 다시없을 초고속 승진으로 불과 4년 만에 대사헌까지 이르게 된다.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등에 업은 정암은 4년간 이상적인 도학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치주의를 표방하며 개혁 정치를 펼친다.

정암 도학사상의 철학적 기반

정암의 도학사상은 크게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으로 접근 가능하다. 정암 도학을 존재론적으로 볼 때, 유가에서 전통적으로 형이상의 궁극적 존재를 '도(道)'로 표현해 왔듯이 정암에게도 궁극은 도이다. 정암은 정통 성리학자답게 도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도는 '천(天)'에 뿌리를 두고 인간에게서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천에 근본하는 도 자체는 만유의 궁극적인 원리로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도의 실현은 인간이라는 주체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때 도는 인간의 '심(心)'에 의존하여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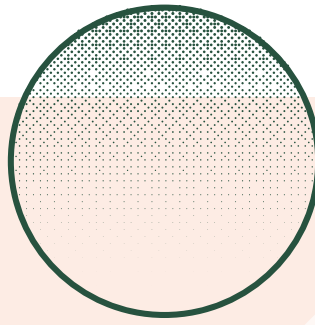
그렇다면 도가 의지하여 발현되어 나오는 인간의 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하여 정암은 '성(誠)'이라는 존재 당위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성은 간단히 말해 진실한 실천이다. 심은 성이 아니면 의지하여 행할 수가 없다 하여, 인간이 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암은 진리의 실현은 무엇보다 그 주체인 인간의 진실됨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종합하여 '도'·'심'·'성'의 존재론적 구조를 보면, 정암 사상에서 천에 근본하는 도는 철저하게 '인(人)'이라는 실천



1750년 국오 정홍래작 조광조 영정

주체에 의하여 발현하고, 인간에 있어서는 심으로 매개되고, 그리고 심은 다시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천에 의거하는 도인 천도는 인심에 의존하여 발현되고, 인심은 성을 유지·확보하여 '자기화(自己化)'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 또는 도의 구현에 있어서 그 주체가 인간이어야 함은 정암 존재론의 핵심이다. 진리의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 주체와 관련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무의미하며, 진리라고 할 수도 없다. 정암은 도의 실현이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기존의 성리학보다 인간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정암은 그런 측면에서 인간과 천은 완전하게 하나의 이치로 합일한다는 '천인일본(天人一本)'을 제시했다. 또한 존재론적 차원과 당위론적 차원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인식의 차원과 실천의 차원도 둘로 나



누지 않는 것이 정암 도학의 특징이다. 따라서 덕을 밝히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의 축적을 위한 노력이 아닌, 지극한 노력이 수반되는 수양공부이다. 정암 스스로 그 학문 과정에서 보여준 수도적 자세는 명덕과 도의 관련성에 대한 실천적 반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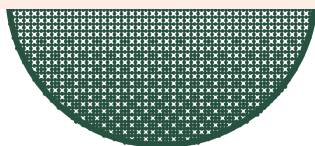
인식론 차원에서는 도와 진리 인식의 주체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인 도는 인간을 통하여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으로, 정암은 인간을 도의 인식 주체로 뚜렷이 규정하였다. ‘도외무물(道外無物)’과 ‘심외무사(心外無事)’는 도는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 원리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니, 도를 인식하고 체득함에 있어서 인간이 빠지면 의미도 없어진다는 뜻이다. 정암은 이미 진리가 자신 안에 있다는 입장인데, 이때 진리의 실천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진리를 만들어 내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어와서 내재하는 객관적인 이치로, 도를 올바르게 인식한 뒤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진리란 객관적이면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으로, 주관과 객관을 통합하여 존재하는 이치인 것이다. 정암 도학에 있어서 인식론적 차원은 진리의 인식, 진리의 체득, 자신의 진리화라는 단계로 진행된다. 즉 진리의 인식은 곧 진리의 체득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지(知)와 행이 하나로 파악되어 스스로 진리화 과정으로 나아간다. 진리의 본래성과 현실성이 주체적으로 심화된 자기 속에서 하나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양을 통하는 성(誠) 공부가 중요한 인식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정암의 진리 인식 이론은 인식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수양론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질지성으로부터 현실에서는 선함이 발현되기 어렵다. 바로 이 점에서 수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정암에게 있어 수양은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고 성인에 이르기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다. 여기서의 수양은 사물 이치에 관한 학습이라기보단 내면을 닦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결합되어 있는 근본을 밝혀내고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수양 방법은 이지적,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격물치지와는 다르다. 격물치지가 이치를 밝힘으로써 나아가 성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라면, 내면의 성을 밝히는 수양적 방법은 심령적·수도적 방식과 통한다.

가치의 근원으로서 도는 정암에게 있어 진리의 실천이라는 문제와 관계된다. 정암은 인간의 모든 가치를 통일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도는 모든 구체적 가치의 기준이며 실천의 근거이다. 정암이 중시한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고금을 통하여 불멸의 절대적 의미를 지닌 도에 근원하는 것이다. 가치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른 개념으로는 성(誠)과 선(善)을 들 수 있다. 진리의 실천은 그것이 선이라는 절대적 확신, 즉 진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간의 행동도 결국 도에서 비롯되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선한 본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리의 근원인 도를 규정하면서도 그러한 도에 대한 인식은 나라는 인간 주체를 떠나지 않았다. 형이상학적 도에 근원하였으나 인간 바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성과 윤리성을 떠나지 않았고, 인간 주체성 안에서 모든 가치를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 점은 정암 가치론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정암에게 있어 성은 바로 ‘성심’이다. 정암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의 기본 요건 혹은 자세로 성실성 확립을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실성은 만물의 존재 이유가 되며, ‘불성이면 무물’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 성이란 천지만물이 그 본래성을 잘 유지하고 만유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유이며, 현실에서의 모든 구체적 사실들의 기강이 성립하는 근본이 여기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성은 만물의 존재 이유가 되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으로, 성에 부여한 존재론적·가치론적 의미는 지극하다.

위에 설명한 개인적 차원의 수양을 바탕으로 정암은 가치의 실현과 도의국가 건설을 주창했다. 정암은 인간이 본질적 성품을 충실히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공공의 가치로서 특히 의(義)를 강조하였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 것은 의와 이(利)의 분별이었다. 이것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강조하여 사회를 새롭게



하여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이었다. 정암은 정치적·사회적 위기와 혼탁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공성의 부재, 특히 군주를 비롯한 통치 집단의 도덕성 상실과 탐욕적 사리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치나 사회의 운영 원리가 마련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정암은 도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당하게 저질러진 사리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암 도학 사상의 현실정치에의 적용

정암 도학 사상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정암 도학 사상은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교육적인 면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났으나 정치 부문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정암은 군신공치의 재상정치론을 제시하였다.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정치 구조로서 중앙 정치권력의 중심축으로 '성군'과 '현상(현명한 재상)', 즉 군신공치의 이중 구조이다. 여기에서 군주는 하부 위정자를 선택하고 정사를 위임하거나 군림하는 최고 통치자이고, 재상 혹은 대신은 국사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군주를 보좌하는 권력의 중심 세력이다. 군주와 재상이 형식적으로는 상하 관계, 즉 상명하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구조가 서로 공치하거나 공조 관계에 있다. 광명정대한 치세의 대업, 즉 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주와 재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지치를 이루는 '공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겉으로 형식화하면 군왕의 권위를 훼손하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어 제도화할 수 없는 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재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정사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정암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대안적 성격이 강했다.

정암은 군주의 조건으로 '밝음'을 제시하고 재상의 조건으로는 '어짐'을 제시했다. 이는 정치적 상황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많고, 정도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명철한 임금과 현량한 재상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정암의 재상정치론은 전통 왕조 시대의 통치구조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군주일인통치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통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군주 한 사람의 단견이나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대신들에게 위임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론정치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정권의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백성이 누리는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부양억음(양을 띄우고 음을 억제함)과 군자·소인의 분별이다. 정암은 만유의 존재 원리와 질서의 근본이 기본적으로 음양구조로 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정암은 양은 선으로서 순기능으로, 음은 악으로서 역기능으로 규정하고, 만사가 음이 양을 능가·멸시·침범하는 것에서 정사와 시비와 선악이 갈리게 되므로 철저하게 '억음존양'의 원리를 강조하고 중시하였다. 정암은 도리는 음이 양을 능가, 멸시, 침범하는 데에서 어그러진다고 밝힌다. 이적이 중국을 침범하는 것과 소인이 군자를 능멸하는 것이 같은 이치로, 천존지비와 억음존양의 분수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암이 음양과 남녀와 천지의 상하귀천을 당연한 질서로 고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음양이 각각 고유한 위치와 역할이 있는 법인데, 음이 양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어긋나게 되는 질서의 혼란을 염려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소인이 군자를 능멸하는 당시의 잘못된 풍습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정암의 부양억음은 전도된 가치와 정국의 상황을 올바르게 고쳐 놓고자 하는 의도와 연결된 것이다. 정암은 당대 혼란스러운 상황의 근본 원인이 이른바 소인의 득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된다고 판단하여, 군주가 군자, 소인을 분별하여 소인을 척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것은 정암이 군주에게 정치 분야에서 건의한 여러 가지 유의할 점들 중에서 가장 절실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물론 정암이 당시 정치구도를 군자와 소인이라는 단순 구도로 설정한 흑백논리라는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악함을 배척하고 정당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적 가치 추구가 당시 혼란된 정국을 풀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일이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암은 군주가 군자와 소인을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재를 가려 등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필수적으로 군주의 일심이 광명정대해져야만하

고, 일심광명은 격치성정 공부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임금이 군자와 소인을 밝게 분별하여야만 치평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암의 군자 소인론은 도학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시 탐욕스러운 권관들이 사람을 음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심지어 군자를 소인배로 몰아 참혹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도된 실상(무오사화, 갑자사화 등)을 엄정하게 경계하고자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애홀보민의 왕도정치론을 제시하였다. 정암 도학의 정치적 이상은 왕도정치를 존송하고 패도정치를 천시하는 이른바 '존왕천패'였다. 전통적 견지에서 볼 때 왕도정치의 근본이란 인의의 구현으로서, 내면의 어진 본성을 잘 발현하여 인의와 정신과 예로써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정치이다. 정암 출사 전후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은 군주는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고통에 처하게 하고, 권세가들의 이익은 끝이 없는 상황이었다. 정암이 특히 인의의 도가 구현되는 이상사회를 위해 패도정치를 지양하고 왕도정치를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런 시대상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정암이 말하는 왕도정치로서의 인정에서 인이란 무조건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공정·정대·공명하게 베푸는 것이다. 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리의 당부를 변석하지 못하면 진정한 인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 점은 정암의 왕도정치가 사회적 공의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질게 베풀되 밝게 살피고, 과감하게 결단할 줄도 아는 인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암 조광조의 개혁정치

정암은 자신의 도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치적 개혁정치를 펼쳤다. 첫 번째로, 정암은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소격서란 원래 고려의 대청관을 계승한 것으로 도교의 일월성신을 나타내는 상청과 태청, 옥청 등을 위해 삼청동에 제단을 설치하고 질병이나 재변, 국가의 우환 등이 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관아였다. 소격서의 혁파는 조광조가 커다란 개혁 과제로 삼아 오던 것이었으나 존치된 기간이 길고 유래 또한 오래되고 보니 없애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소격서는 미신을 배척하는 유교의 입장에서 마땅치 않은 배경해야 할 이단 이었고, 소격서에서 치르는 수많은 제사 때마다 쓰이는 재물은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었으며 소속 관원들에 대

한 인건비의 지출 또한 그러하였으니 무익하게 경비만 들어가는 소격서는 당연히 혁파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두 번째로, 천거과인 현량과의 실시를 제시하였다. 그전까지의 과거제는 종이에 나타나는 문장만을 보고 선발하는 방법 이므로 당사자의 실무 능력이나 인격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동안 천거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천거인에 대한 조정에서의 처우는 단순히 경명행수(경학에 밝고 행실이 착함)의 인물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표시일 뿐인 상징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 정암은 지치를 하려면 조정에 군자들이 많이 모여야 하고, 그러자면 결국 덕 있고 경학에 밝은 사람을 가득 선발하여 관직에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향시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나이 37세 중종 13년 3월에 정식으로 현량과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보수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의 호의적인 반응 아래 중종 14년 4월에 마침내 현량과가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28명이 최종 선발되었으나, 이 제도는 조광조의 실각과 더불어 곧바로 폐지되니 결과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시행이었다. 이 현량과의 목적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관료를 등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중요한 위치에 임명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현량과 실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정암 세력의 강화와 보수파의 약화를 가져왔다.

세 번째로, 정국공신의 개정이었다. 정국공신이란 연산군을 몰아내는데 공을 세웠다 하여 주어진 훈작으로, 이를 받은 사람 가운데 엉터리가 많아 그 수는 모두 합쳐 조선조 개국 이래 최대의 숫자인 117명에 이르렀다. 중종 반정공신 책봉에는 공신 책정 자체가 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위훈이었다는 것과 그 보상이 당대의 국가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손대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았고, 호의호식하며 사치를 누리면서 국자 재정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토록 반정공신들의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니 정암이 중종 14년에 이

르러 반정공신에 대한 위훈삭제를 추진했다. 게다가 이것은 훈구파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동시에 그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자신이 꿈꾸었던 도학적 이상 정치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11월 중종의 윤허로 76명의 공신이 삭제되었고 이에 앞서 여러 이유로 삭훈된 12명이 있었으므로 삭훈된 사람들의 총 수는 무려 88명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초래된 반대파의 반발은 기묘사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암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이상에 다가가고자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개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후에 큰 파장을 낳았다.

기묘사화와 개혁의 좌초, 개혁의 한계

정암과 사림파의 개혁으로 중종은 정국공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대신, 유교적 도학 정치라는 원리원칙에 속박되었다. 정암이 조정에 출사한 것은 요순시대와 같은 이상 정치를 펼치려는 것이었으나, 원래 중종의 본심은 정암을 이용해 자기를 임금으로 만들어 준 반정 실세를 털어 버리고 왕권을 반석에 올려놓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변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게다가 도학자들의 일관된 개혁 추진으로 차츰 증대되고 있던 훈구 세력의 위기의식과 그 무렵 도학자들의 정도에 대한 타협 없는 추구에 대한 중종의 염증이 맞물려져, 신진 사림들에게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중종은 평소 조광조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남곤과 심정에게 조광조를 제거하라는 은밀한 내용을 전하기에 이르렀고, 왕의 변심을 눈치챈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른바 '주초위왕(조 씨가 왕이 된다)'이라는 비방을 통하여 정암을 모함하였고, 결국에는 정암을 비롯한 도학자들을 일망타진하게 되는 참화인 기묘사화가 발발하게 되었다. 결국 기묘사화로 정암의 개혁도 끝이 났고, 정암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개혁적 조치들도 중단되었다.

정암은 지나치게 관념적이었거나, 또는 목숨보다 신념을 중시했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는 사림의 돌격대장으로서 당시 조선에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시대적 환경과 조선국가의 특수성'을 주의하지 못했던 점에 한계가 있었다. 정암에게 정치는 (유교)이념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였

다. 이렇게 정치가 이념실천의 도구로 추락함에 따라, 그의 정치적 행동은 비현실성, 구체적으로는 역사성의 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는 그를 둘러싼 젊은 개혁주의자들의 과격하고 조급한 개혁 추진에 있었다.

다시 정암을 생각하다

현대사회는 다원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거의 모든 가치는 상대화되고 있다. 어떤 권위도 절대성을 상실하며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한다. 최근 한국사회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갈등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개인주의화의 부작용도 함께 터져 나오는 것 같다. 필자는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갈등사회, 혐오 사회로 진단한다. 세대 갈등, 성 갈등, 계층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혐오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과 국가는 존재하지만 작지만 진정한 공동체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은 그 공동체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은 아직은 모색 중이다. 물론 21세기에 정암의 도학 사상을 다시 꺼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이를 가꾸어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익지향적인 사회는 분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치인부터 가치 추구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가치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확보한다면 보다 긴 호흡으로 장기지속적인 공동체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간과 가치를 정치의 중심에 놓았던 정암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 

